



국내 180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기다려온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17개 시도 선수단 2만 여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생활체육 행사이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식 퍼레이드. 사진제공 | 대한체육회

1800만 생활체육 동호인 ‘축제 속으로~’

26~29일 서울서 생활체육대축전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 명 참가
36개 정식종목·10개 시범종목 열전
강영중 회장 “스포츠 복지 토대 마련”



올해는 서울
이다.
대한체육회

(회장 김정행·강영중)가 생활체육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하 대축전)이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전국 1800만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생활체육 최대 행사이다.

생활체육 참여 확산과 지역·계층간 화합에 기여해 온 대축전은 올해로 16회를 맞이했다. 2001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돼 지난해에는 경기도(이천·여주·용인 등 12개 시군)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축전은 36개 정식종목, 10개 시범종목 등 총 47개 종목으로 열린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 명이 참가한다.

재외동포선수단도 6개국에서 216명이 내한해 9종목에 참가한다. 2013년 이후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되는 재외동포 생활체육교류전은 지난해에 비해 2종목, 89명이 늘었다. 한·일 생활체육 교류 행사도 26~6월 1일 대축전과 함께 열린다. 195명의 일본선수단이 한국을 찾아 10개 종목에서 국내 동호인과 우정의 경쟁을 벌이게 된다.

●27일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

27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in Seoul, 서울人’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드림 서울(식전행사)’, ‘열림 서울(공식행사)’, ‘끌림 서울(식후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정·관계, 체육계 등 각계 인사와 각 시도 종목별 참가자, 시민들이 참석해 대축전의 출발을 축하한다.

공식행사에 앞서 진행되는 식전행사에서는 윈드양상빌, 합창단, 생활체육

인 및 서울대표공연팀 공연이 펼쳐진다. 공식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린다. 귀빈 및 선수단 입장, 국민의례, 개회선언, 개회사 및 환영사 등이 이어진다.

강영중 대한체육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합 대한체육회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삶 속에 스포츠가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스포츠 복지의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알리며 “국민 누구나 스포츠 기본권인 생활체육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체육의 바탕 위에서 전문체육이 더욱 발전하는 체육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스포츠강국을 뛰어넘어 스포츠신진국으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한다”며 동호인들이 생활체육 전파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대축전은 전 국민이 참가할 수 있지만 출전제한(3년) 규정이 있다. 올해 대축전에 출전한 동호인은 3년 뒤인 2019년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 보다 많

은 동호인들에게 참가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이번 대축전에 참가한 동호인의 평균 연령은 46.2세로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등록 동호인이 2295명으로 가장 많다. 최고령 참가자는 충북 당구대표로 출전한 이대규(92) 옹이며 최연소자는 부산광역시 국악기공 대표 정하주(6) 어린이이다.

대축전 기간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결들여진다.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하는 팬 사인회, 원포인트 레슨, 애장품 기부행사도 열린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관광, 문화가 함께 하는 대축전은 매년 16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축전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폐회식에서는 내년도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회가 이양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고일수

문안나

미사리 경정장엔 ‘고-문 커플’이 대세

고일수, 9승·삼연대율 83% 호성적
문안나, 5월의 여왕 등극 등 상승세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우리 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송 송(송중기 송혜교)커플이 있다면 미사리 경정장엔 고-문(고일수 문안나)커플이 있다.

국민수상스포츠 경정이 지난 2002년 6월 18일 첫 레이스를 펼친 지 14년. 그동안 경정계에선 ‘사내결혼’이 많았다. 오세준(1기)-이시원(3기), 이태희(1기)-이주영(3기), 박진서(11기)-김희영(11기), 고일수(5기)-문안나(3기), 심상철(7기)-박성희(3기), 지용민(11기)-손지영(6기), 권일혁(6기)-안지민(6기) 등 모두 7쌍이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때론 경쟁자로, 때론 동반자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들 경정부부 중 최근의 핫이슈는 단연 ‘고-문커플’이다. 최근 뚜렷한 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인 고일수 선수가 지난 4월 21일 데뷔 9년 만에 대상경주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데 이어, 아내 문안나 선수는 5월 18일에 열린 경정 여왕전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5월의 여왕’으로 등극하며 상금 500만원을 거머쥐었다. 부부가 불과 한 달 새 주요 경기의 시상대에 번갈아 오르는 겹경사를 누렸다.

고-문 부부의 상승세는 ‘반짝’이 아니라 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고-문 부부의 올 시즌 성적을 보면 남편인 고일수 선수는 9승을 올려 다승 순위 12위, 상금 총액 4천175만원으로 랭킹 2위에 올라섰다.

지금까지 0.19초의 빠른 평균 스타트와 승률 30%, 연대율 63%, 삼연대율 83%의 호성적을 나타내고 있고 작년 통산 성적 승률 34%, 연대율 55%, 삼

연대율 71%와 2014년 승률 32%, 연대율 51%, 삼연대율 74%에 비해 올해 전반기 성적은 단연 돋보인다.

프로펠러 고정지급제 도입으로 경정 선수가 준비할 수 있는 승부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거둔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에 대한 남다른 집중력과 꼼꼼한 자기 관리의 결과물” 덕택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단순한 1턴 공략에서 벗어나 상대 움직임에 따라 자유롭게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고감도 스타트를 앞세운 공격적인 전술 운영으로 전 코스에서 고르게 입상을 기록하고 있다.

아내인 문안나 선수도 남편에 뒤지지 않는다. 현재 승률 29%, 연대율 54%, 삼연대율 57%를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작년 승률 12%, 연대율 37%, 삼연대율 53%에 비해 성장세가 확연하고 특히 승부코스인 1코스에서의 활약이 주목할 만하다. 올해 1코스에서 8번 출전하여 연패자기(외족)의 선수를 견제하며 1턴을 먼저 도는 전법)로 우승만 5회를 거둬 우승 확률 68%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상금 랭킹 10위(3천57만원)로 상금 랭킹 톱 10 안에 부부가 나란히 이름을 올려놓았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스타트 난조를 극복한다면 남편인 고일수와 함께 올라운드 플레이어라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김용석 팀장은 “고일수, 문안나 부부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기량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단순한 전술 운영이 문제였다. 최근 이들 부부의 상승세엔 전술 운영과 턴 스피드 보강, 자신감 회복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고-문 커플이 하반기에도 나란히 동반상승세를 이어가 연말 그랑프리에도 시상대 맨 꼭대기에 오를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연재호 기자



‘벨로드롬의 대세’ 박용범이 30연승 고지를 넘어 조호성의 보유하고 있는 47연승에 도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6월에 펼쳐질 이사장배 대상 경륜이 47연승으로 가는 고비로 평가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30연승 박용범, 경륜 레전드 조호성 넘을까

지난주 3승 추가로 30연승 대기록
2006~2007년 조호성 47연승 도전

‘벨로드롬의 대세’ 박용범은 ‘경륜 레전드’ 조호성을 넘을 수 있을까.

박용범(28·187기)이 30연승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박용범은 지난 주 광명 21회차에서 3승을 추가해 30승 고지에 올랐다. 역대 2위였던 현병철의 29연승 기록을 가볍게 넘었다.

박용범의 무패행진은 지난해 11월 6일 창원 15경주부터 시작했다. 지난 4월엔 2014년 이현구가 세운 21연승(역대 5위) 기록을 넘어서더니 이후 대기록들을 나란히 뒤로 제치며 폭풍질주를 이어갔다. ‘잠실 경륜의 지존’ 주광일이 2000년 세운 23연승을 넘어, 2001년 지성환(28연승)의 연승기록까지 가볍하게 제치며 30연승을 단숨에 삼켜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레전드’ 조호성이 기록한 47연승을 넘느냐 여부다. 조호성의 47연승 기록은 2006~2007년, 약 1년여에 걸쳐 작성된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이다. 프로야구로 치면 백인천의 4할 타율, 박준철의 22연승에 맞먹는 ‘불멸의 기록’이다.

박용범은 조호성의 47연승을 넘어 경륜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까. 전문

가들의 대답은 대부분 “해볼만 하다”로 귀결된다. 이유가 있다.

우선 박용범이 현재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거 대상 경주에만 출전 자격이 주어졌던 슈퍼특선반이 현재는 일반 특선급 선수들과파도 맞붙는 대전 체계로 바뀐 점 역시 한 몫을 한다. 즉 과거에 비해 대전 상대가 비교적 수월한 편을 자주 만나기에 그만큼 승수 쌓기가 더 쉬워졌다.

박용범 특유의 ‘무결점 패달’도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박용범은 한바퀴 선행 승부의 약점이 있어 역대 지존급 선수들과 비교할 때 핸디캡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자신의 사정거리인 반바퀴 이후까지 길을 터가는 능력은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중 위기관리 상황 대처 능력을 비롯해 막판 결정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래서 큰 경기에서도 대단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박용범은 국내 최강의 지역 연대인 김해팀과 요즘 벨로드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87년생 동갑내기 친구들까지 그 연대의 폭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 그래서 경기 중 전개도 비교적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이는 조호성이 과거 지역 연대의 최고봉으로 불리던 호남팀과 일당백으로 또 기라성 같은 대표팀 선배들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과 비교할 때도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소 운동 육식이나 승부욕이 대단한 박용범은 작년 결혼 후 안정감마저 더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그 기세를 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 주위의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박용범이 조호성의 기록을 깰 수 있는 가장 큰 고비로 오는 6월에 펼쳐질 이사장배 대상경륜을 꼽고 있다. 올스타전 형식을 띠고 있는 이 대회는 국내 최고의 경륜 선수들이 총출전하는 만큼 예선부터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박용범은 작년 경륜선수들의 꿈인 그랑프리에서 이어 이사장배까지 접수한데다 특유의 집중력을 잘 살린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는 의견도 많다.

박용범이 기록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한 경기 한 경기로 최선을 다한다면 47연승 기록 경신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다. 조호성의 연승기록이 작성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 그 기록이 깨질 비교적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연재호 기자



지난 3월 5일 제1회 KFSO 종합격투기 대축제 개최에 앞서 로드FC 챔피언 등 관계자들이 사랑 나눔 헌혈행사에 참가한 뒤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내달 11일 ‘제2회 KFSO 종합격투기 대축제’

아마추어 동호인 누구나 참가 가능

“생활체육 종합격투기인을 모두 모여라!”

종합격투기 생활체육화 위한 ‘제2회 KFSO 종합격투기 대축제’가 오는 6월 11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KFSO(대한격투스포츠협회)가 주최하고 로드FC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생활체육 종합격투기 동호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KFSO 종합격투기 대축제는 일반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순수 아마추어 대회로 종합격투기의 생활체육화를 목적으로 시작돼 지난 3월 5일 제1회 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제1회 대회에는 어린 아이부터 성인, 외국인까지 수백여 명이 참가해 종합격투기의 밝은 미래를 보여줬다. R

OAD FC 정문홍 대표와 박상민 부대표를 비롯해 김보성, 윤형민, 최홍만, ROAD FC 챔피언들이 시상자로 나서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시상자들과 함께 포토타임도 가지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 대회가 열린 장충체육관 앞에서는 사랑 나눔 헌혈행사를 열어 사회 환원과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에 열리는 제2회 KFSO 종합격투기 대축제도 마찬가지다. ROAD FC 정문홍 대표와 박상민 부대표를 비롯해 김보성, 윤형민, ROAD FC 챔피언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대회에 앞서 보육원을 방문해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6월 8일까지 이메일(judottokebi@hanmail.net)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재호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